창업 생태계·미래성장기반 구축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1)스타트업의 요람 제주혁신성장센터 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018년 제주혁신성장센터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육성 프로그램, 문화·예술산업 콘텐츠 개발 및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 등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옥 2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전경 3 에바가 개발한 '파키(Parky)'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세미양 빌딩에서 제주혁신성장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JDC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중점 육성대상 산업분야로 ▷전기·자율주행차 ▷ICT 기반 문화·예술 산업분야를 선정했다.

이후 JDC는 전문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수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같은해 9월 12일 전기·자율주행차 산업분야 수탁사업자로 한국과학기술원, ICT 기반 문화·예술분야 수탁사업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선정했다.

제주자치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은 2019년부터 전기·자율주행차 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전기·자율차 기술 개발 및 전문·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AR, VR을 포함한 문화 기술을 통한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제주혁신성장센터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해가며 자율·전기자동차 산업분야 ▷ICT 문화예술 분야 ▷소셜벤처 육성 등 분야별 전문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멘토링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2020년 12월 기준 혁신기업 50개사, 155명 신규 일자리 창출, 307억원 누적 투자유치의 성과를 보였다.

JDC는 2021년부터 'Route330'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아이덴티티(BI)와 함께 새롭게 개편해 ICT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기업 육성'과 자율·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업이 연구·개발·실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산업 육성'의 투트랙(Two track)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아기유니콘 3개사 선정, CES 혁신상 3관왕 수상 등 성과
정부 R&D 4건·사업비 95억원 유치 및 프로젝트 수행
2022년 기준 유망기업 60개사·155명 신규 일자리 창출

▶주요 성과=제주혁신성장센터는 그동안 아기유니콘 3개사 선정, CES 혁신상 3관왕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R&D 4건(총 사업비 95억원)을 유치했다.

이 가운데 아기유니콘200 사업은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성장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이다.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미래 모빌리티 분야(KAIST 위탁 운영) 입주 기업인 (주)포엔이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Route330 AEV 입주기업이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건 차량 출장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카랑(2021년 졸업), MaaS를 지향하는 모빌리티 전문기업 (주)네이처모빌리티에 이어 세 번째다.

(주)포엔은 현대자동차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를 통해 폐기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사이클링 '전기차 배터리팩 리퍼비시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포엔은 지난 10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리퍼비시 배터리를 신품의 50% 가격에 판매하며 제주에서도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에바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혁신기술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ic Show)에서 혁신상 3관왕에 올랐다.

(주)에바는 자율주행형, 전동 카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으로,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에바는 2018년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으로 시작해 스핀오프한 이후 삼성벤처투자, 네이버 D2SF,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전기차 완속 충전기 Smart EV Charger의 양산과 시장 보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에바가 개발한 '파키(Parky)'는 장소 제약에서 벗어나 주차장 어디든 사용자가 호출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충전 로봇으로 스마트 시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 긴급 출동 급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VMC(Van Mounted Charger)'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에바는 '파키'의 2023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JDC는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에서는 ICT,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현재 60개 사가 입주해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이 취재는 JDC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